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9. 5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김민성/사무관 조성래 (Tel. 044-200-2371/2372)

* 엠바고 : 즉시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

‘정부기업청년’ 함께 힘을 모아 청년일자리 문제 돌파구 찾아야

- 황 총리, 청년 일자리 문제 논의 위해 ‘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’ 개최
-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완결 및 규제개혁 강조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5일(월) 1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(종로구 세종로)에서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를 가졌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·창업 등 기회를 얻은 청년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,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.

○ 간담회에는 취·창업 준비청년, 직업훈련청년, 취·창업 청년 등 청년 40여명과 기업, 관계기관, 정부 부처 등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였다.

* ▲ 청년(40명) : 특성화고·대학교 재·졸업생 등 취·창업 준비청년, 일학습병행·취업성공패키지·고용디딤돌·청년인턴 등 직업훈련 청년, 취·창업청년 등

▲ 기업(5명):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이사, 정동섭 휴네시온 대표이사,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이사, 박주현 동부대우전자 인사팀장, 김용성 새한산업 인사기획팀장

▲ 학교(2명): 고현진 성동공업고등학교 부장교사, 최성희 숙명여대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팀장

▲ 관계기관(2명):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,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

▲ 관계부처(3명): 박용호 청년위원장 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,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,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

- 참석한 청년들은 이번 간담회가 청년 실업문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, 본인들의 취업준비 경험과 취업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,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였다.
-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김00씨(30세, 취업준비생)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좋기는 하지만, 단순히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.
- 고용디딤돌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한0씨(29세, 직장인)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내일채움공제 같은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
- 특성화고 3학년으로 취업을 준비중인 이00씨(18세, 학생)는 취업 후 대학을 갈 수 있는 재직자 전형이 가능한 회사와 학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.
-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이00 (26세, 대학교졸)는 청년들에게 신념과 도전이 필요하며 '백수'라는 용어보다는 "갬이어" 와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청년들이 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- 취업 준비생인 김00(31세, 대학교 졸업생)은 본인의 경우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 후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, 사회가 실패에 대해 용인하는 포용문화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-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에 격려를 보내면서,
 - 정부는 앞으로 "일자리 창출"을 "국정운영의 중심"에 두고,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

- 청년들이 “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성장해 가는 사회”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,
 -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, 창업지원 및 직업훈련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,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과 실력에 따라 채용이 될 수 있는 능력중심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.
 - 아울러, 청년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,
 -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결하고, 규제개혁을 통해 사물인터넷, 가상현실 등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유망산업의 일자리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.
 - 또한, ‘청년일자리’ 문제는 정부·기업·청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므로,
 -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고, 청년들도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였다.
 - 특히, 청년들에게는 대기업 같이 남들이 가는 길만이 아닌 새 길을 찾을 것을 강조하면서,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.
- 황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설치된 창업지원공간, 고용존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- 오늘 간담회는 청년이 가업을 이어 운영 중인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주문하고, 아나운서 지망생인 청년이 사회를, 청년이 창업한 디자인 회사에서 행사 현수막을 디자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 하였다.